



전시관입구 →
Entrance

2009 여름 대전발전포럼 | 현장탐방 |

국가기록원



국가기록원

대전발전포럼 편집 위원회는 이번 호 현장탐방지로 국가기록원을 방문했다. 이번 탐방은 이번 포럼이 대전 승격 60주년, 광역시 승격 20주년이란 주제를 다루는 만큼 대전의 역사와 기록을 찾아본다는 의미에서 진행하였다. 대전발전연구원 편집위원회는 국가기록원의 김영선 문화홍보팀장과 정동규 공보담당을 만나 국가기록원의 설립과정, 기록물 보관 현황, 이용방법 및 현황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국가기록원은 국가기록관리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중요기록물을 체계적으로 수집·보존하여 국민들에게 다양한 기록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앙기록물관리 기관이다. 1969년 총무처 소속의 정부기록보존소로 출발한 국가기록원은 1998년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총무처에서 행정자치부 소속으로 변경되었고, 같은 해 본소를 서울 창성동에서 정부대전청사로 이전하였다. 1999년 제정된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은 국가 전반의 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고, 2004년 행정자치부 직제개편시 정부기록보존소에서 국가기록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국가기록원은 약200만권의 국가 중요기록물을 소장하고 있다 주요한 기록으로는 국보인 조선왕조실록 태백산 사고본 848책을 비롯하여, 조선총독부 문서, 항일 운동가 재판기록, 정부 수립 이후의 중요한 정책관련 기록들을 소장하고 있다. 또한 종이문서 뿐만 아니라 최근의 전자문서, 대한뉴스와 같은 시청각 기록, 대통령 선물등 행정박물 등 다양한 형태의 기록을 관리하고 있다. 종래에 국가기록원의 기능이 기록의 수집과 보존, 보관에 국한되었기 때문에 일반인들에게 별로 알려질 기회가 없었으나 기록이 단순한 서고속의 기록이 아니라 활용하는 정보로서의 역할이 커짐에 따라 일반인들의 이용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일반 시민들의 기록원을 이용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방문열람으로 대전 본원, 성남의 나라기록관, 부산의 역사기록관, 서울기록정보센터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방문이용은 조상 땅을 찾기 위한 '지적원도 열람' 이나 '일제강제 연행자 명부 검색' 에 대한 요청이 많으며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일제 강점 하 '군인·군속 공탁금 명부검색' 의 수요도 늘어나고 있다. 두 번째는 온라인 이용으로 기록원의 소장된 자료를 단순한 보관용이 아닌 정보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온라인 국가기록원



(<http://www.archives.go.kr>)에 접속하여 우측 상단의 '나라기록포털'에 들어가면 약 7천 5백만 건의 기록물을 다양한 방법으로 검색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모든 기록이 일반에게 공개되는 것은 아니다. 현행 기록물법상 공개수준은 30년 이상 국가기록은 공개가 원칙이며, 국가기록원에서 관리하는 200만건 중 36만여건의 비공개 기록물을 제외하고 모두 공개하고 있다. 비공개하는 기록물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명시한 비공개 대상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로 '수용자 신분장'과 같은 개인 사생활에 관한 정보나 외교관련 기록 중 국가 이익이나 국제관계를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등이다.

우리는 국가기록원의 관리 및 이용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처음 방문을 기획한 도에 따라 대전의 옛 모습을 알 수 있는 사진, 건물도면, 시가지 모습 등 대전의 발전사를 연대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을 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물어보았다. 물론 현재 국가기록원에서도 검색가능하고 필요한 경우 자료를 요청하여 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 지방의 기록관리가 국가기록 못지 않게 중요함을 강조함에 따라 2006년 10월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16개 전 시·도에 지방기록물 관리기관 설치를 의무화 하여 중앙의 집중관리에서 지방단위 관리로 전환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지방의 경우 재정이 부족하고 단기간에 가시적 성과가 나지 않는 점, 인식 부족 등의 이유로 아직 갈 길이 먼 것이 사실이다. 지역의 공공기록물을 관리하고 보존하는 것은 투명한 행정운영의 기반 구축은 물론 기록정보 서비스 제공 등 주민의 기록문화 향유를 위해서 필수적이다.

이번 현장탐방을 통해 기록물이 단순히 법률에 의한 보존의 필요성만 강조하는 간헐적인 정보가 아니라 기록물이 가진 정보의 유용성과 학술적 가치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살아있는 기록으로 만들어 가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 되었다. 국가기록원 역시 본원이 대전에 위치하고 있는 만큼 대전시민들의 문화공간으로, 기록학연구의 구심점으로, 기록정보화를 통한 기록문화의 현대적 계승노력 등 기록들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국가기록전시관을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정부청사 2동 1층에 위치하고 있는 국가기록전시관은 전통관, 근대관, 현대관, 대통령 코너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선왕조실록」, 「백범 김구일지」, 「2호와 3호 국새」, 「대통령 선물」등 국가기록원이 소장하고 있는 중요 기록물을 전시하고 있다.

관람시간은 매주 월요일 ~ 금요일까지며 시간은 09:00~18:00까지이며, 초등학교생들이 쉬는 격주 토요일도 개방하고 있다. (국경일/공휴일 제외)

사진은 기록물 복원 장면과 전시관 입구에 있는 대한민국 국새이다.